

빼침과 빠침 : 마을에서 돌봄을 실천한다는 것은

새로운 상상계:시민적 돌봄·난잡한 돌봄

나는 작년에 문탁네트워크에서 돌봄을 공부했고, 올해는 양생을 공부한다. 작년 ‘나이듦’세미나에서 읽었던 『새벽 세시의 몸들에게』 중 전희경의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받기」는 나에게 새로운 개념을 선사했다. 바로 ‘시민적 돌봄’이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돌봄을 발명해낸 개념이다. 이 새로운 돌봄관계는 ‘가족 돌봄’을 넘어서고, ‘서비스’들과는 다른, 다치고 아프고 늙고 언젠가는 죽어가는 취약한 존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연루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존’이라는 조건을 기본으로 한다. 전희경은 이 보편적이면서 불가피한 공동의 운명을 ‘시민적 돌봄’이라고 명명한다. 감정이 있고 취약하며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고 보살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다정한 존재로서의 ‘시민’을 상상해보라고 말이다.

또 올해 양생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읽은 『돌봄 선언』에서는 ‘난잡한 돌봄’이란 개념을 나에게 선사했다. 그 개념은 1980~1990년대 에이즈 인권운동 액트 업 활동가인 더글러스 크림프의 에세이 「전염병 중에 난잡할 수 있는 방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에이즈 유행의 원인이 게이들의 성적 난잡함에 있다는 주장에 그는 게이들의 성 문화의 난잡함은 ‘실험적’인 성적 행위를 배가했음을 의미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난잡함이라는 개념을 ‘가벼운’ 또는 ‘진정성 없는’이라는 의미가 아닌 게이들이 서로에 대해 친밀감과 돌봄을 다양화하며 실험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난 친밀감으로 많은 관계들을 교차하며 난잡하게 돌봄을 실천하자고, 다정하면서 강한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을 돌보자고 결심했다. 그래서 올해 초, 한 마을 모임에 참석했고, 다행히 정치적으로 견해가 맞는 사람들을 만났다. 일단 독서 모임부터 시작해 꾸준히 모이자고 의기투합했고 이왕 활동하는 거, 구청 ‘독서동아리 공모사업’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책값도 지원받고 마을에서 외연을 넓혀보자는 의견을 모아 제안서를 쓰게 되었다. 참여자의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모임원 몇 명을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란 주제로 한참 설전을 벌였다. 설전의 끝에 마음이 상해 ‘빼친’ 한 분이 같이 못 하겠으니 자기의 이름은 빼달라고 했다. 나 또한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한동안 ‘빠침’상태였다.

고작 술자리에서 설전한 걸로 빼치고 마음을 접어버리는 상대방이나, 빠쳐서 다시는 설전의 상대를 보고 싶지도 않은 나나. 내가 돌봄관계에 무슨 착각을 하고 있나? 나의 돌봄역량을 증강 시켜줄 수 있는 ‘시민적 돌봄’과 ‘난잡한 돌봄’, 이 양 날개를 장착하고 기세등등하게 마을에 들어갔는데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좌절된 듯한, 다정하고 친밀하고 ‘샤랄라’한 돌봄을 시작도 하기 전에 관계의 첫 단추 구멍부터 못 찾아 헤매고 있는 듯한 이 ‘빼침과 빠침’ 사건은 무엇이지? 나는 돌봄은 ‘좋은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마을 안에서 돌봄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야 이 스텝의 꼬임을 풀 수 있을 것 같다.

돌봄의 딜레마

1) 돌봄의 불이익

친밀감이 필요한 돌봄은 대인 접촉과 정서적 애착이 함께 제공될 때 가장 좋다고 『돌봄 선언』의 저자들은 말한다. 직접적인 돌봄-대인 돌봄은 돌봄 제공자나 수혜자 모두에게 ‘끈끈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관계가 ‘상호성과 인내’를 동반해야 성공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폐미

니스트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 상호성과 인내가 필요한 관계에서는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고 말한다. 돌봄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감정적 요소가 많은 돌봄은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돌봄관계는 명백하기보다는 암묵적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서로에게 다 ‘똑같은 몫’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폴브레는 돌봄의 불이익의 예로 이타주의의 위험을 든다. 비친족을 돕기 위해 자기 자원의 일부를 포기하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생물은 자기 자손이 쓸 자원을 그만큼 줄이는 것이다. 그런 착한 행동에는 ‘호혜’를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또는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당신에게 당연히 그것을 갚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예로, ‘착한 사람의 딜레마’는 협동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스터디그룹에서 열심히 협력하는 학생은 항상 늦게 나타나는 한 학생이 과제를 협력해서 해나가는 과정을 비껴 갈까 두려워한다. 공공을 위한 다양한 협약은 모든 사람이 협동을 할 경우에만 작동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유대관계에는 ‘심화’되는 책임이 따른다. 그것은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쪽이 사랑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머니들은 특히 초기의 친밀한 신체 접촉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의 포로가 되기 쉽다. 어머니들의 정서적 책임이 자신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바꿔 놓을 수 있기에 그렇다.

이렇게 돌봄에는 샤랄라한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덕은 항상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다. 폴브레는 모두에게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있고 돌봄에 대해 모두 똑같은 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시장’이라는 추상적 존재를 지나치게 자신해왔던 경제학자들에게 우려를 표하며, 그런 시장에 내맡겨진 돌봄 노동은 그 질과 양에 대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나는 이 책에서 돌봄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대안은 찾지는 못했다. 다른 책에서 좀더 파고 들어가 보자.

2) 사회적 유대관계의 잠재적 폭력성

『비폭력의 힘』에서 주디스 버틀러는 자기라는 존재가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에, 관계성이란 어떤 곤란하고 ‘양가적인 역장’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상호의존성을 띠는 모든 관계에는 ‘잠재적 폭력성’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란 늘 여러 형태의 ‘양가감정’을 감안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버틀러는 인간 존재의 파괴능력에 대한 양가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사상에 도움을 받는다.

프로이트가 ‘에로스’와 ‘타나토스’라고 부르는 두 힘은 함께 등장하지만,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에로스는 사회 내부의 개체들을 결합·종합하고자 한다. 타나토스는 바로 그 개체들을 해체하고자 한다. 그러니 사회적 유대관계를 생성·강화하고자 하는 경향과 해체하고자 하는 반대 경향이 한 행동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을 잇는 무언가이기도 하지만, 내재적으로 양가적인 무언가, 따라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괴할 가능성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무언가이기도 하다. 즉, 어떤 파괴적인 힘이 사랑 안에 들어 있거나 사랑에 둘러쌓여 있다는 말이다. 돌봄관계에는 이 양가적인 역장 안에 있는 파괴의 벡터적 움직임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버틀러는 이런 움직임을 잘 살펴보기 위해 ‘대입 가능성’이라는 윤리학적 사고실험을 제안한다. 어떤 행동이 저질러진다면 ‘상호적’으로 저질러질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르려고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 나를 상대방의 자리에 집어넣거나 상대를 나의 자리에 집어넣는 가설적 대입 행동을 상상해보라고 한다. 사고실험의 초반에는 의식적 과정일 수 있지만, 대입의 과정 중에 어떤 무의식적인 영역에 감응하게 된다.

이런 상상은 폭력이 ‘양방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게 해주며, 나의 공격성이 상대방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두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고실험은 버틀러가 질문한 ‘우리는 무슨 까닭으로 상대방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가?’의 부정형 버전이다. 그러한 뒤집기 또는 부정적 변증은 상대방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충동이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우리가 상대방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자 할 때, 무의식적 형태의 대입은 우리가 삶의 처음 시작부터 서로의 삶 속에 맞물려 있고, 나 자신을 지켜내는 일과 상대방을 지켜내는 일은 구분되지 않으리라는 통찰을 준다. 나의 삶이 상대방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애매성’과 내가 저지르는 일이 나에게 저질러질 수도 있다는 ‘피해 판타지(무의식적)’는 그런 식으로 맞물려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하게 한다.

여기까지 서술한 돌봄에 내용을 정리하자면, 1) 돌봄에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 2) 사회적 유대관계에는 양가감정이 있고,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서로 힘을 겨루고 있다. 3) 그 힘들은 상호적으로 일어난다. 대입가능성은 폭력이 우세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런 돌봄을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살해 충동을 살해하라

그 답은 사회적 유대관계의 필수 구성요소인 ‘잠재적 폭력성’을 인식하고 이 폭력성에 맞서야 한다. 우리가 그 폭력에 맞서려면 ‘파괴하지 말라’는 도덕률을 심리적 삶의 보편적 맥락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파괴충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살해 충동을 살해하라’라는 명령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버틀러는 이번에도 프로이트의 사상에 도움의 손길을 구한다. 프로이트는 폭력성을 대적하는 길은 두 가지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에로스라는 적수”를 동원할 것, 그리고 공동체 형태의 ‘동일시’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는 사랑과 미움은 충동의 필수성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어 내고 지켜내는 사랑의 편, 공동체 감각을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동일시의 편에 섬으로써, 사회적 유대관계를 무분별하게 깨뜨리는 파괴충동(타나토스)을 지양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랑-에로스라는 적수-이 파괴성에 맞서는 대항력으로 간주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프로이트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파괴하는 힘에 맞설 만한 공격적 힘을 심리 내부에 있는 비판력에서 찾는다. 이 비판력은 다양한 형태의 의도와 성찰을 포괄하고 있으며, 의도적 성찰적 형태의 파괴성, 곧 극기와 연결된다. 또한 “죽음충동의 순수배양물”로 간주되는 초자아와도 연결되는데, 초자아의 비판적 자기성찰은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비판력이 자아의 생명 자체를 위협에 빠뜨릴 때, 에로스의 자기보존 성향이 필요해진다.

버틀러는 이 에로스의 자기 보존력을 ‘사랑/열광/조증’이라고 부른다. 열광은 살아 있는 유기체의 저항, 무절제한 초자아에 의해 파괴당할 가능성에 맞선 저항이다. 열광은 “비현실적” 형태의 저항 연대들을 이해하는데 열쇠를 제공한다. 생존하려는 열광적 욕구에서도 증명되듯 열광은 주체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현실과의 접점을 잃어버리게 한다. 지금 현실로 수용되면서 당연시되는 무언가와 결별하려는 열광의 ‘비현실주의’는 우리를 곤란한 현실에서 생존하도록, 연대하도록 독려한다.

프로이트는 “폭력은 단결 앞에 무너진다”-폭력은 “공동체의 힘”을 통해 무너진다-라고 말하면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약자들의 연합체는 남들보다 강한 한 개인의 힘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연합체에 권한이 이전될수록 구성원들에게 점점 더 큰 권익이 생겨야 하고, 구성원들이 공동체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익 공동체”에서 폭력에 대항할 답을 구할 수 있다. 독재자에 반기를 드는 공동체 감각이 바로 열광이고, 현실에 반기를 드는 한 방법이 바로 열광인 것이다.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영원한 투쟁에서 에로스가 우세하도록 역시 조증적 열광적 사랑이 답이다. 답을 찾아 돌고 돌았지만, 다시 샤랄라한 돌봄이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작년에 들은 채운샘의 니체 강의에서 ‘메두사의 뱀목’과 “민주주의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과 같다”란 말을 들었다. 그리고 올해 읽은 『차이의 정치와 정의』에서는 집단을 설명하며 “내던져진 상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것은 버틀러의 책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에서 나온 ‘공거(共居,cohabitation)’라는 말과 같은 뜻일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논의인 공거는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지를 선택할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책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생명이 살 만하도록,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들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의 근간이 된다. 그러한 책무는 갈등이 빚어지는 ‘선택하지 않은 공거’라는 상황에서도 지켜내야만 하는 ‘윤리적 책무’이다. 우리가 함께 살고자 분투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드넓은 사랑 때문도 아니고 평화에 대한 순전한 욕망 때문도 아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은 공거는 우리의 정치적 실존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내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 하려는 돌봄도 마찬가지다. 마을 안의 관계에서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빠침과 빠침’사건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이 운명공동체의 배를 좌초시키지 않고 육지에 도달하기는 선원들 서로의 협력과 분노의 조율에 달려 있을 것이다. 샤랄라한 돌봄관계를 이어가고 증식시켜가기 위해서는 관계의 끈끈한 역장에 있는 타나토스의 보이지 않는 실루엣을 쫓는 ‘비상한 눈과 비상한 감각’을 지녀야겠다. 그것이 돌봄능력을 증강 시키는데 핵심일듯하다.

나는 계속해서 ‘시민적 돌봄’과 ‘난잡한 돌봄’을 실험해 나갈 것이다. 실패를 거듭하며 돌봄능력을 벌크업(bulk up) 할 것이다. 나 혼자만의 실험이 되지 않도록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아가 시민적돌봄 경제적 모델에도 도전하고 싶다. 또 돌봄이 정치적 의제가 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적 활동도 잘하고 싶다. 이런 돌봄활동들이 내가 받아온 돌봄을 돌려주는 길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책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영원한 에로스가 영원한 타나토스와의 투쟁에서 분발해주기를 바란다” (프로이트,『비폭력의 힘』,201쪽)